

‘신안 1004섬 김밥’ 전국 공략 나선다

‘신안세계김밥페스타’ 성공 발판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홍보·판매
생활개선연합회원들에 기술 전수



신안군이 출시한 1004섬 김밥 3종.

형상화한 신안정원김밥, 신안 천일염의 깊은 맛을 살린 소금김밥, 신안의 톳을 사용한 ‘바다의 맛’ 그대로를 담은 바다김밥을 선보인다.

축제 기간 매일 ‘1004섬 한정 김밥’ 판매하며, 가격은 3000원부터 5000원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된다.

신안군은 현재까지 7종의 신안김밥 레시피를 개발하고 신안군생활개선연합회 및 신안김밥연구회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술 전수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교육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김밥 행사는 빵튀기를 접시로 활용하여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실천 활동으로 신안군의 슬로시티 운동에 동참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해 행사장 일원에서는 전남의 김밥 문화와 먹거리 콘텐츠가 함께 선보인다. ‘이색 김밥 스트리트’, ‘다문화 김밥 만들기 체험’, ‘AI 로봇김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생활개선신안군연합회 김효정 회장은 “신안의 맛과 맛을 담은 특색있는 김밥이 전국 어디서나 ‘이것이 신안 1004섬 김밥이다’라고 불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leslee@kwangju.co.kr



완도 호랑가시나무길.

완도군, 해변공원 호랑가시나무 경관 숲 조성

완도군이 해변공원 일원에 ‘완도호랑가시나무 해안 경관 숲’을 조성한다.

완도군은 지난 5월 지역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군북을 동백에서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1978년 완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지명이 붙었다. 둥근 잎끝에 가시가 있으며 가을

철부터 열매가 익으면서겨우내 붉은 열매를 맺고 있어 관상 가치가 높은 완도군의 향토 수종이다.

경관 숲 조성 사업에는 5억원이 투입돼 1.5km의 읍 해변공원 일원에 완도호랑가시나무가 식재된다. 이 해변공원은 ‘2023·2024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개최 장소로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머무는 휴게형 정원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온라인 쇼핑몰 ‘영광몰’ 추석 대목 성과 5000만원 매출 달성

영광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광몰’이 추석을 기점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유통 채널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영광몰은 지난해 말에 개설돼 올해 초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입점 업체를 모집하고 시스템 안정화도 병행하며 운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약 열흘 동안 추진했던 ‘영광몰 추석맞이 할인행사’ 진행으로 약 5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쿠팡이나 G마켓 같은 대형 유통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영광군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영광몰’에서만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광군은 농산물 생산자와 가공업체의 판로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 농특산물 유통 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몰이 지역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판매 채널로 자리 잡고있는 만큼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입점업체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군, 지방자치경영대상 ‘복지보전대상’

주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호평

영암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에서 복지보전대상을 받았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공공행정 관련 연구·컨설팅·교육으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지방자치 경영 혁신과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조직된 민간 전문기관이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전국 지자체 경영력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민간경영 기법으로 평가·시상하는 장이다.

영암군은 주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 돌봄 강화, 군민 건강 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정책을 내용으로 참여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와 복지체계 연계, 고령사회 대응, 장애-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 현장 중심 복지 혁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민 만족도를 높인 점을 강조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복지보전대상 수상은 영암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영암 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체감 복지 혁신,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 ‘냉장고를 부탁해’ 지역민 큰 호응

취약계층 신선 식재료 지원

해남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지정기부사업인 ‘냉장고를 부탁해’가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건강 취약계층 20가구를 선정, 매일 10만원 상당의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 전달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 중 해남군에서 처음 실시됐다.

특히 의료급여관리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을 병행하면서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건강 관리, 정서적 돌봄까지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양 불균형 문제와 건강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기획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혜자 중 한 어르신은 “몸이 아파서 따로 밥을 챙겨 먹기 힘들었는데,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챙겨주고 건강까지 살펴줘서 큰 힘이 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데 큰 힘이 됐다”라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오늘 ‘새정부 문화·관광 정책 포럼’

목포시와 (재)목포문화재단이 17일 오후 2시 상그리아비치호텔 8층 대연회장에서 ‘새정부 문화·관광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문화·관광 정책 반영을 통한 목표의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경쟁력을 도모하며, 차별화된 문화관광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1부 관광포럼은 ‘초지수적 성장의 시대와 지역관광의 전환’, 2부 문화포럼은 ‘새정부의 문화전략과 목포시 K-컬처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 교수들이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으며, 각 세션 주제발표 후에는 지역 교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이 이어진다.

포럼 중에는 특별세션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예술인의 창작 보호 및 저작권 계약 관련 무료 상담 컨설팅도 실시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향후 목포의 문화관광 정책 수립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목포의 관광과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과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